



Osceola County, Florida

Created in 1887, Osceola County serves as the south/central boundary of the Central Florida greater metropolitan area. Located between the southeastern Atlantic Ocean and the Gulf of Mexico, Florida is called the ‘Sunshine State’ with warm temperatures and sunlight throughout the year. Agricultural and livestock industries have developed due to mild weather throughout the year, and it is the largest citrus producer in the United States. Tourism and leisure industries have developed around Disney World and Miami Beach in Orlando have become world-famous tourist attractions.

More than 61,000 companies, or 20% of all U.S. exporters, are in Florida, ranking second in the number of U.S. exporters. The value of goods exported and imported through Florida has increased by about 60% over the past decade, ranking third in the state-of-the-art exports (\$14 billion).

Why Florida?

1. Business friendly environment

No strict regulatory requirements, low corporate taxes, and personal income tax. Through seven trading offices, various programs and services are provided, including export consultation for companies located in Florida.

2. Geographical/Technical Benefits

Advanced infrastructure, 20 commercial airports, 15 ports, highway/rail network, major high-speed data transfer hubs

3. International Business Hub

Foreign affiliated companies in Florida have holdings of USD 80 billion and employs more than 385,000 Floridians. FDI inflows average about \$10 billion a year.

4. Steppingstone to the Latin American Market

Florida is home to the world’s largest cluster of Latin American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with 1/3 of its trade volume going to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more direct flights from Florida to South American and Caribbean cities than the rest of the United States combined.



미국 진출의 첫걸음, 플로리다 오세올라카운티에서 시작하세요.

남동부 대서양과 멕시코 만 사이에 위치하는 플로리다는 일년 내내 따뜻한 기온과 높은 일조량으로 'Sunshine State'라고 불립니다. 또한, 연중 온화한 날씨로 농, 목축업이 발달했으며 미국 최대 감귤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올랜도의 디즈니월드와 마이애미 비치를 중심으로 관광, 레저산업이 발달했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미국 전체 수출기업의 20%에 해당하는 6만 1000개 이상의 기업이 플로리다에 위치하고, 미국 전역 수출기업 수 2위를 차지합니다. (1위: 캘리포니아주) 수출, 수입 관련 일자리가 250만 개에 이르며 2014년 기준 10년 만에 고용수준이 3배 가까이 성장하였습니다. 플로리다를 통해 수출입된 상품의 가치는 지난 10년간 약 60% 증가하였으며, 미국 내 분야별 수출 실적으로는 최첨단 기술 수출 부문에서 3위(140억 달러), 원산지 수출 부문에서는 6위(538억 달러)를 차지하였습니다.

Why Florida?

사업하기 좋은 환경

플로리다는 미국 내 기업을 운영하기에 좋은 기업으로 손꼽힙니다. 각종 규제 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며, 법인세가 낮고 개인소득세가 없습니다. 7개의 무역사무소를 통해 플로리다에 위치한 기업의 수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국제 비즈니스 허브

플로리다에 있는 외국계 기업은 약 800억 달러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385,000명 이상의 플로리다 주민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FDI 유입은 연간 평균 약 100억 달러입니다.

중남미 시장으로의 디딤돌

미국 내 중남미와 카리브해로 나가는 교역량의 1/3이 이루어지며, 세계 최대의 중남미 전문 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 클러스터의 본거지입니다. 플로리다 공항에서 남미 및 카리브해 도시로 가는 직항편이 미국의 나머지 지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마이애미는 CEO들이 "비즈니스를 위한 최고의 라틴 아메리카 도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